

#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and Infant's Communication\*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김명순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이유진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Myoung So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Yoo Jin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and infant's communic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4 pairs of infants aged 13 to 24 months and their mothers. The infants' communication and their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were observed during mother-infant's free play for 10 minutes. The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was analysed on the basis of turn-taking and gaz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of infants aged 13 to 24 months developed rapidly with a certain tendency.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fants' age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and infant's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주제어(Key Words):** 상호적 반응성(interactive responsiveness), 응시하기(gazing), 차례 맡기(turn-taking),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 의사소통 수단(communicative means)

Corresponding Author : Yoo Ji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26-21 Kongreung-2Dong Nowon-Gu, Seoul 139-742 Tel: +82-2-3399-1573 E-mail: yjlee@syu.ac.kr

\* 본 논문은 2006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을 시작한다. 언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영아라 하더라도 주위의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아는 출생 시부터 타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몸짓, 응시하기, 미소 짓기 등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점차 그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정한 구어나 문어 상징을 사용하는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해 나간다(김명순, 1999).

영아기 의사소통이란 출생부터 시작하여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에 주고받는 역동적인 상호과정(dynamic interactional process)으로, 이 과정은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전달하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과 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communicative means)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생의 초기에 처음으로 습득되는 영아기의 대화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능과 효과적인 표현 양식으로서의 의사소통 수단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영아기 의사소통은 영아의 언어발달이나 놀이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세 이후 발달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고 연구되고 있다(Reinhartsen, 2000; Wetherby, Warren, & Reichle, 1998). 이에 선행연구들은 의도적 의사소통의 빈도가 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의 전이와 이후 언어능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Wilcox, 1993; Yoder & Warren, 2001). 이 중 일부 연구들은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 빈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으며(김기숙, 2004; Champman, 2000; Snow, Pan, Imbens-Baily, & Herman, 1996), 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 출현이 상황에 따라 다름을 보고하였다(김금주, 2000; Bakerman & Adamson, 1986). 또한 영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해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영아의 의사소통에 있어 의도성(intentionality)의 발달을 제시하였다. Bruner(1975), Wetherby, Cain, Yonclas와 Walker(1988) 등은 영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범주에는 행동통제, 사회적 행위, 주의환기(joint attention) 세 가지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Wetherby와 그의 동료들(1988)은 영아기 의사소통 기능의 월령에 따른 발달변화를 살펴본 결과, 언어이전기, 한단어시기, 다단어 조합단계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기능은 행동통제였고, 그 다음은 주의환기였으며 이것들은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김기숙(2004)은 12개

월, 18개월, 24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행동통제, 사회적 행위, 주의환기의 세 가지 의사소통 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행동통제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의환기의 경우 12개월에는 미미한 출현을 보이다가 18개월, 24개월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영아기 의사소통 수단은 영아기 발달과 더불어 전언어적 형태에서 언어적 형태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즉, 영아는 출생 후 1년까지 의미 있는 실제 단어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몸짓, 발성, 응시하기 등의 전언어적인 형태를 통해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첫 단어를 산출하면서 비로소 언어적인 의사소통 행위자가 되는데 생후 1년 6개월경부터 영아는 두 단어 조합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산출하기 시작하고, 몸짓과 단어 조합 형태와 더불어 만 2세를 전후로 점차 전언어적 수단은 줄어드는 반면 단어, 단어조합 같은 언어적 수단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영아기 의사소통 수단에 관한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특정 측면(예: 발성, 몸짓)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해 준다고 보고함으로써(Brady, Marquis, Fleming, & McLean, 2004; Calandrella & Wilcox, 2000) 영아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영아기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영아기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영아기 의사소통을 연구한 경우에도 대부분 의사소통 기능만을 연구에 포함하거나(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김기숙, 2004; 박휴용, 1994; 홍경훈, 김영태, 2001) 의사소통 수단(임현숙, 배소영, 송승하, 2001; 장유경, 최윤영, 김소연, 2005; 정경희, 2004)만을 연구하여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을 포괄하는 의사소통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에도 소수의 연구만이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Iverson, Capirci, Longobardi & Caselli, 1999; O' Neill, Bard, Linnell & Fluck, 2005). 그러므로 영아기 의사소통의 발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 측면을 포괄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영아기 의사소통 발달은 사회적 환경 내에서 어머니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영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성숙된 응시하기(gaze), 초보적인 차례 맡기(turn-taking), 그리고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맥락 내에서 의미 있고 관련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는 상호성(reciprocity)이 특징이다. 즉,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민감하게 언어이전 단계인 영아의

신호에 반응해주고, 영아의 행동에 의미를 붙여주면서 상황에 맞추어 마치 대화하듯이 하는 상호 교환적 경험들을 제공해 줄 때 영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의도와 기능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영아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즉 영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의 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 시도에 대해 어머니가 응시해주고 이를 해석하여 발성이나 몸짓, 또는 단어로 반응해 주는 협력적 과정이 영아의 의사소통과 후기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Masur, Flynn, & Eichorst, 2005; Paavola, Kunnari, & Moilanen, 2005;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Yoder & Warren, 2001).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이나 이런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13~24월까지 영아들을 대상으로 월령에 따른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을 포괄하는 의도적인 의사소통 발달을 살펴보고, 둘째, 영아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변화를 살펴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기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에게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과 관련된 상호적 반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매우 미흡한 영아기 의사소통 연구의 초석 마련과 이 시기의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주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3~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월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은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도적인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2개월 전후로 의도적인 의사소통과

첫 단어가 출현한다는 선행연구들(김금주, 2000; 김기숙, 2004; Bates, Camaioni, & Volterra, 1975)을 기초로 13~24개월 영아와 어머니 총 6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을 의사소통 수단 형태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장유경외 2인, 2005; 정경희, 2004; Capirci & Iverson, 1996; Coggins & Carpenter, 1981; Wetherby & Prizant, 2003)을 기초로 13~15개월, 16~18개월, 19~21개월, 22~24개월 네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별로 남아 8명, 여아 8명 총 16명씩 포함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령은 31~35세가 6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6~30세가 20.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모두 고졸이상으로 2년제 대졸이상이 84.4%였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1~300만원이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미만과 301~400만원이 각각 17.2%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 2. 연구도구

### 1) 영아의 의사소통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영아의 의사소통은 사건표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10분 동안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행동을 먼저 발화행위(speech act) 단위로 분석한 후, 각 발화행위에 대해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의 하위항목 중 조작적 정의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한 번씩 빈도를 기록하고 이들 빈도의 합을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의 빈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기초단위인 의사소통 발화행위는 Wetherby와 Prizant(2003)가 제시한 의사소통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조건, 즉 (1) 의사소통 상대방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2)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3) 발성, 몸짓, 언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말하기와 몸짓에 있어 침묵이 전/후에 따르고, 대화의 차례가 바뀌고, 억양의 패턴에 있어 변화가 있는 단어/몸짓의 연속된 행동으로(Iverson et al., 1999) 정의하였다.

### (1) 의사소통 기능의 분석기준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Wetherby와 Prizant(2003)가 제시한 분석기준을 기초로 하고, Coggins와 Carpenter(1981)의 분석기준과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기능은 행동통제(behavior regulation), 사회적 행위(social interaction), 주의 환기(joint attention), 기타(unclear)로 구분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하위요인과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는 <표 1>과 같으며, 결과분석 자료로는 행동통제, 사회적 행위, 주의환기만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대상 중 15쌍에 대해 본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연구자 1명이 분석한 자료의 일치도(일치한 빈도수/(일치한 빈도수+불일치한 빈도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 간 일치도는 .99였다.

(2) 의사소통 수단의 분석기준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Wetherby와 Prizant(2003)가 제시한 분석기준을 기초로 하고, Iverson과 그의 동료들(1999)이 제시한 하위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수단은 몸짓, 발성, 단어+몸짓, 단어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분석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대상 중 15쌍에 대해 본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연구자 1명이 분석한 자료의 일치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 간 일치도는 .98이었다.

2)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상호적 반응성은 '의사소통을 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소통행위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의 질'로 정의하였다(Reinhartsen, 2000).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상호적 반응 행동인 '차례 맡기(turn-taking)' 과 '응시하기(gaze)' 를 하위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항목과 조작적 정의

하위 항목	조작적 정의
행동 통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행위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하거나 혹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물요구나 거부가 이에 포함된다.
사회적 행위	상대방의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유도하거나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거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게임과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 수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상대방을 유도하는 행위인 사회적 일상요구, 곤란과 좌절로부터 위안을 얻기 위해 상대의 주의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위안요구, 의사소통 시작을 위해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위한 행위인 부름, 사건이나 사물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상호작용의 시작과 종결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인사, 자신이 한 어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로 주의를 이끄는 행위인 과시하기, 그리고 자신이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상대가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행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동의요구 등이 포함된다.
주의 환기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혹은 의사소통의 특정 주제로 타인의 주의를 유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거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요구(어떤 사물, 사건이나 이전에 말한 것에 대한 정보, 설명, 혹은 명료화를 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기타	의사소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가장 적합한 기능범주로 구분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통제, 사회적 행위, 주의환기의 분류할 수 없는 행동이 포함된다.

<표 2>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하위항목과 조작적 정의

하위 항목	조작적 정의
몸짓	• 상대방을 향해 의사소통 기능을 위해 손이나 머리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비음성적인 행동(예: 가리키기(point), 보여주기(show), 고개 끄덕이기(nodding head), 사물·사람·위치·사건의 특성에 대해 묘사하는 것) • 발성과 몸짓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두 가지의 형태가 연이어(2초 이내) 발생하는 형태
발성	특정 의미와 결합되지 않은 모음이나 모음의 앞이나 뒤에 오는 자음을 포함한 소리
몸짓+단어	단어와 몸짓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두 가지의 형태가 연이어(2초 이내) 발생하는 형태
단어	• 관습적 단어와 거의 비슷한 소리 패턴이나 신호, 특정사물, 행위, 속성, 그리고 단어 종류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형태 •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단어와 조합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2개 이상의 분명한 단어를 포함하는 발화

<표 3>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하위행위의 조작적 정의

하위 항목	조작적 정의
차례맡기	특정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주제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대화적 몸짓 또는 말하기에 반응하는 행위
응시하기	타인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함께 바라보기 위한 시도로 공동의 대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 바라보는 행위, 또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분석을 위한 하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표 3>과 같다. 차례 말기는 관련된 주제를 유지하며 영아의 대화적 몸짓 또는 말하기에 2~3초 내로 반응하는 빈도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응시하기는 영아와 함께 공동의 대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 바라보거나,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의 빈도로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대상 중 15쌍에 대해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 연구자 1명이 분석한 자료의 일치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차례 말기는 .96, 응시하기는 .99로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행위에 대한 관찰자간 평균 일치도는 .98이었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위한 놀이감의 종류, 분석기준들의 적합성, 실험시간 운영의 합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대상이 아닌 영아와 어머니 4쌍을 선정하여 놀이감이 준비되어 있는 실험실에 방문하여 어머니-영아 놀이에 참여하였다. 어머니-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20분간 녹화한 후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이 녹화된 자료를 함께 보며 어머니와 영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고, 각각의 분석 범주 기준과 조작적 정의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을 위해 제공해 주는 놀이감을 한꺼번에 제공해 준 결과 놀이감의 사용과 대화의 주제가 산만하고 다양하지 못함을 보였기에 본 조사에서는 놀이감을 자동차놀이, 인형놀이 및 요리놀이 세트로 구분하여 놀이상자에 나누어 넣은 후에 순서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요리놀이를 위해 모형과일과 음식을 추가하여 제공하였다.

#### 2) 본 조사

본 연구는 놀이감이 준비된 실험실에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대상선정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의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로 연구 협조를 의뢰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방문일자를 결정하고, 실험실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인 어머니와 영아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영아의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간단한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영아가 실험실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

였다. 작성이 끝나면 본 실험실로 들어가 연구자가 어머니에게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놀이감을 가지고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듯이 놀이를 하되 상자 속의 모든 놀이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다. 영아가 실험실에 익숙해지면 영아용 의자에 앉히고, 어머니는 놀이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뒤쪽에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한 주제의 놀이감으로 약 5분정도 놀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놀이감 상자를 제시해 주었다.

실험에 사용한 놀이감은 예비조사 결과와 어머니-영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기숙, 2004; 성지현, 2000; Iverson et al., 1999)에 기초하여 자동차놀이 세트(비행기 1개, 기차 1개, 버스과 사람 인형세트), 인형놀이 세트(장난감 전화기 1개, 카메라 1개, 아기인형 1개), 그리고 요리놀이 세트(큰 접시 2개, 작은 접시 2개, 숟가락 2개, 포크 2개, 컵 2개, 그릇 2개, 주전자 1개, 모형과일과 음식) 세 주제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카메라로 녹화되었는데 어머니와 영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였고 세 번째 놀이감을 가지고 약 5분 정도 놀이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 종료되었다. 본 연구는 15~20분 동안 이루어진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의 시작과 끝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놀이가 진행되는 10분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해 월령집단별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하위행동에 대한 영아 월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 Pearson 직렬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월령집단에 따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월령집단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월령집단에 따른 영아의 의사소통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월령집단	13~15개월 (n=16) M(SD)	16~18개월 (n=16) M(SD)	19~21개월 (n=16) M(SD)	22~24개월 (n=16) M(SD)	전체 (N=64) M(SD)	F	
기능	행동통제	9.69(6.94)	9.75(4.39)	7.88(3.44)	6.56(2.99)	8.47(4.77)	1.72
	사회적행위	2.88(3.40)	2.63(2.36)	2.88(2.94)	2.25(3.89)	2.66(3.13)	.14
	주의환기	18.13(13.05) <sup>a</sup>	24.00(12.01) <sup>a</sup>	33.81(9.42) <sup>b</sup>	38.19(14.44) <sup>b</sup>	28.53(14.46)	8.71***
	기능합	30.69(12.91) <sup>a</sup>	36.38(11.97) <sup>ab</sup>	44.56(10.66) <sup>bc</sup>	47.00(13.63) <sup>c</sup>	39.66(13.72)	5.92**
수단	몸짓	41.38(10.24) <sup>a</sup>	53.63(11.27) <sup>b</sup>	53.63(18.30) <sup>b</sup>	55.69(17.21) <sup>b</sup>	51.08(15.43)	3.17*
	발성	1.75(2.14)	4.44(6.48)	3.69(3.66)	5.56(7.53)	3.86(5.45)	1.41
	단어+몸짓	2.44(4.60) <sup>a</sup>	3.69(6.93) <sup>ab</sup>	10.31(12.94) <sup>bc</sup>	15.38(14.05) <sup>c</sup>	7.95(11.45)	5.37**
	단어	.94(2.38) <sup>a</sup>	1.63(2.92) <sup>a</sup>	4.88(8.62) <sup>a</sup>	11.31(10.01) <sup>b</sup>	4.69(7.88)	7.62***
수단합	46.50(12.21) <sup>a</sup>	63.38(12.72) <sup>b</sup>	72.50(12.11) <sup>b</sup>	87.94(18.44) <sup>c</sup>	67.58(20.46)	24.09***	
전체 의사소통빈도	46.50(12.21) <sup>a</sup>	63.38(12.72) <sup>b</sup>	72.50(12.11) <sup>b</sup>	87.94(18.44) <sup>c</sup>	67.58(20.46)	24.09***	

\* $p < .05$  \*\* $p < .01$  \*\*\* $p < .001$

※ a, b, c는 Duncan사후검증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전체의사소통 평균빈도는 67.58회였으며, 월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3,60)}=20.46, p < .001$ ). 월령집단별 영아의 전체 의사소통의 평균빈도를 살펴보면, 13~15개월 집단이 평균 46.50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고, 16~18개월 집단은 평균 63.38회, 19~21개월 집단은 평균 72.50회로 나타났으며, 22~24개월 집단은 평균 87.9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3~15개월과 그 이후의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6~18개월과 19~21개월과 22~24개월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6~18개월과 19~21개월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중 먼저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빈도는 평균 39.66회였으며, 월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_{(3,60)}=5.92, p < .01$ ).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항목별로 전체 빈도를 살펴보면, 행동통제의 평균은 8.47회, 사회적 행위의 평균은 2.66회, 주의환기의 평균은 28.53회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아가 사물이나 행위를 언급하거나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행동통제의 목적을 위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월령집단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3~15개월( $M=30.69$ )집단보다 22~24개월( $M=47.00$ )집단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16~18개월과 19~21개월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항목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환기( $F_{(3,60)}=8.71, p < .001$ )만 영아 월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행동통제와 사회적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의환기는 13~15개월( $M=18.13$ )집단과 16~18개월( $M=24.00$ )집단보다 19~21개월( $M=33.81$ )집단과 22~24개월( $M=38.19$ )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영아가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발달한 후에 행동통제나 사회적 행위의 기능보다는 주변의 사물이나 행위를 언급하고 정보를 요구하고자 하는 주의환기 기능의 의사소통 빈도가 18개월 전후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살펴보면, 의사소통 수단의 전체 빈도는 평균 67.58회였으며 월령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3,60)}=24.09, p < .001$ ). 집단 간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전체 빈도의 발달변화는 13~15개월, 16~18개월과 19~21개월, 그리고 22~24개월의 세 시기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시기들은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12개월 전후의 첫 단어 습득, 18개월 전후의 어휘폭발, 20개월 이후의 단어조합의 출현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에 하위유형별 평균빈도는 몸짓 51.08회, 발성 3.86회, 단어+몸짓 7.95회, 단어 4.69회였다.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하위항목별 월령집단 간 차이는 몸짓( $F_{(3,60)}=3.17, p < .05$ ), 단어+몸짓( $F_{(3,60)}=5.37, p < .01$ ), 단어( $F_{(3,60)}=7.62, p < .001$ )의 경우 월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발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몸짓의 경우에 13~15개월( $M=41.38$ )집단보다 16~18개월( $M=53.63$ ), 19~21개월( $M=53.63$ ), 22~24개월( $M=55.69$ )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표 5〉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상호적 반응성	월령집단	13~15개월 (n=16) M(SD)	16~18개월 (n=16) M(SD)	19~21개월 (n=16) M(SD)	22~24개월 (n=16) M(SD)	전체 (N=64) M(SD)	F
차레 맡기		40.97(14.96) <sup>a</sup>	64.63(13.27) <sup>b</sup>	72.97(12.44) <sup>bc</sup>	79.56(21.34) <sup>c</sup>	64.53(21.38)	18.01***
응시하기		49.81(11.88) <sup>a</sup>	53.38(10.83) <sup>ab</sup>	59.19(9.79) <sup>bc</sup>	65.06(12.94) <sup>c</sup>	56.86(12.58)	5.50**
합		90.78(24.45) <sup>a</sup>	118.00(17.39) <sup>b</sup>	132.13(15.81) <sup>bc</sup>	144.63(30.04) <sup>c</sup>	121.38(29.93)	16.67***

\*\*p<.01 \*\*\*p<.001

※ a, b, c는 Duncan사후검증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유의하게 높았다. 단어+몸짓의 경우에는 13~15개월(M=2.44)집단보다 22~24개월(M=15.38)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단어는 13~15개월(M=.94)집단, 16~18개월(M=1.63)집단, 19~21개월(M=4.88)집단보다 22~24개월(M=11.31)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아가 어휘습득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22~24개월에 단어와 단어조합의 사용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첫 단어 출현이후 19~21개월까지의 시기에는 몸짓과 몸짓을 보조적 수단으로 동반하는 단어+몸짓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하위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전체평균 빈도는 121.38회로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_{(3,60)}=16.67, p<.001$ ). 상호적 반응성의 하위행동 유형별 평균 빈도를 살펴보면, 차레 맡기는 64.53회( $F_{(3,60)}=18.01, p<.001$ )이고 응시하기는 56.86회( $F_{(3,60)}=5.50, p<.01$ )였으며 두 하위행동 모두 월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 월령집단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레 맡기는 13~15개월 집단보다

16~18개월 집단이, 그리고 16~18개월 집단보다 22~24개월 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응시하기의 경우에는 13~15개월 집단보다 22~24개월 집단보다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전체 합은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 $r=.60, p<.01$ )과 의사소통 수단( $r=.83, p<.01$ )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합은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 중 주의환기( $r=.65,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에 있어서는 몸짓( $r=.62, p<.01$ ), 단어+몸짓( $r=.33, p<.01$ ), 단어( $r=.31, p<.05$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하위행동 유형에 따라 영아의 의사소통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차레 맡기는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 중 주의환기( $r=.56, p<.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에 있어서는 몸짓( $r=.53, p<.01$ ), 발성( $r=.31, p<.05$ ), 단어+몸짓( $r=.40, p<.01$ ), 단어( $r=.41, p<.01$ )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과 영아의 의사소통 간 상관계수

(N=64)

어머니	영아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수단				
		행동통제	사회적행위	주의환기	기능합	몸짓	발성	단어+몸짓	단어	수단합
상호적 반응성	차레 맡기	-.04	-.09	.56**	.56**	.53**	.31*	.40**	.41**	.86**
	응시하기	-.24	-.24	.59**	.48**	.59**	-.07	.12	.03	.50**
	합	-.13	-.16	.65**	.60**	.62**	.19	.33**	.31*	.83**

\*p<.05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3~24개월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별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전체 의사소통 평균빈도는 13~15개월 집단에서부터 22~24개월 집단까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8~12개월 전후로 의도적 의사소통이 출현한 이후 영아기에 의사소통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한다는(Reinhartsen, 2000) 사실을 지지해 준다. 또한 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을 반영해주는 의사소통 기능의 전체 빈도 역시 낮은 월령에서 높은 월령으로 갈수록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전체 의사소통 기능의 합을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시간인 10분으로 나누어 분당 의도적 의사소통 빈도를 산출한 결과 13~15개월 집단은 3.0회, 16~18개월 집단은 3.6회, 19~21개월 집단은 4.4회, 22~24개월 집단은 4.7회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김금주, 2000; 김기숙, 2004; Champman, 2000; Snow et al., 1996)에서 제시한 12개월 전후에는 분당 평균 1회 이상의 의사소통 빈도를 보이고, 18개월 전후에는 2~5회, 24개월에는 5~7회의 의사소통 빈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유사하나 월령집단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Bakerman과 Adamson(1986)이 설명하였듯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영아의 의사소통 산출이 가장 활발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가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의 전체 빈도를 월령집단에 따라 살펴본 결과, 월령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 기능의 전체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하위항목별로 전체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의환기가 모든 월령집단에서 가장 높은 산출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행동통제였으며, 사회적 행위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기숙, 2004; Bruner, 1975; Wetherby et al., 1988)이 제시한바와 같이 8~12개월 사이에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영아기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의사소통 기능은 행동통제와 주의환기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위항목별 변화를 월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16~18개월 이후에는 타인과 사물/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는 주의환기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는 영아가 사회적 의사소통자로 변화하는 시점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전체 빈도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전체 빈도의 발달변화는 13~15개

월, 16~18개월과 19~21개월, 그리고 22~24개월의 세 시기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으로서 의사소통 수단 또한 영아기 동안 그 형태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빠르게 발달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alandrella & Wilcox, 2000; Capone & McGregor, 2004). 또한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12개월 전후의 첫 단어 습득, 18개월 전후의 어휘폭발, 20개월 이후의 단어조합의 출현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유사하여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 발달이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의사소통 수단의 하위항목별로 월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수단의 하위유형 중에서 13~24개월 모든 기간 동안 몸짓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단어+몸짓, 단어순으로 나타났다. 몸짓, 단어+몸짓, 단어의 수단은 모두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항목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몸짓은 13~15개월에서부터 16~18개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이후시기엔 유사한 수준의 빈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Paavola et al., 2005; Reddy, 1999)이 보고하였듯이 영아기에 비록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므로 언어적 형태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24개월까지는 여전히 몸짓을 포함한 전언어적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13~24개월 동안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몸짓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임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단어+몸짓 형태가 단어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단어+몸짓이 단어 이전에 나타나는 전이적인 형태로 언어적 의사소통의 발달과정에 의미 있는 언어적 수단이라고 한 Capirci와 Iverson(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월령이 높아졌을 때 단어+몸짓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때의 몸짓은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몸짓이 아니라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기 등의 상징적 또는 표상적 몸짓이므로 언어습득 이후에도 언어발달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Goodwyn & Acredolo, 1993; Iverson & Goldin-Meadow, 1998)고 볼 수 있다. 단어는 19~21개월부터 22~24개월 사이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18개월 전후에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9~20개월 전후에 두 단어 조합의 형태를 구사하게 되면서 영아가 보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3~24개월 동안 전언어적 형태인 몸짓부터 언어적 형태인 단어조합까지 모든 유형이 발달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짓은 전시기에 걸쳐 가장 우세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어 영아기 몸짓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의사소통 수단의 각 하



위항목들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 발달이 추후 언어 발달과 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의 차례 말기와 응시하기는 모두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정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주제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대화적인 몸짓, 발성, 말하기 등에 반응하는 행위인 어머니의 차례 말기는 13~15개월과 16~18개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후 22~24개월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이것은 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의 형태가 발달되면서 어머니가 영아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반면 영아도 어머니의 대화적인 차례 말기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유된다. 또한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몸짓 또는 발성의 전언어적 형태를 사용하더라도 영아의 의사소통적 시도에 우리나라 어머니가 민감하게 해석하고 반응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시각적 단서를 통해 타인이 바라보는 대상을 함께 바라보거나 공동의 대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 바라보는 응시하기는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2~24개월에 이전 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21개월 이후 영아의 주의환경 기능의 사용이 많아 하면서 영아가 관심을 갖는 대상으로 시각적 응시하기를 통해 반응할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응시하기는 13~15개월에 차례 말기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가 16~18개월부터 차례 말기보다 훨씬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점차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13~15개월부터 영아의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시각적 단서에 따르지 않고도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물과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아의 응시하기 능력이 정교해짐과 동시에 몸짓과 언어능력이 발달함에(Flom & Pick, 2003; Moor & Corkun, 1998) 따라 시각적 단서인 응시하기 상호반응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하위행동인 차례 말기와 응시하기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이 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과 언어능력 발달을 예측해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Paalvola et al., 2005). 그리고 차례 말기와 응시하기 모두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요인 중 주의환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영아의 의사소통 시도에 상호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영아가 타인과 공동의 대상이나 주제를 공유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어머니가 차례 말기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모

든 형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차례 말기를 통한 상호적 반응성은 영아가 전언어적 형태에서 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수단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의 전체 의사소통 빈도는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의사소통 기능 중 주의환기는 다른 기능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6~18개월 이후에 급증하였다.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 중 몸짓, 단어+몸짓, 단어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몸짓은 16~18개월에, 단어는 22~24개월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이 전언어적 수단으로부터 언어적 사용의 변화로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13~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에 있어 몸짓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은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라 증가하였다. 13~15개월에는 응시하기의 빈도가 높았다가 16~18개월부터는 차례 말기의 빈도가 더 높아졌다. 이것은 어머니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에 따라 상호적 반응 빈도와 형태를 변화시켜 영아의 의사소통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셋째,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은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차례 말기는 영아의 의사소통 수단의 모든 형태와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이 영아가 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3~24개월 영아를 월령집단으로 묶어 조사하였으므로 각 월령에 따르는 변화를 제시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월령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영아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10분간만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료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실 내 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 간의 상관관계만을 밝혔을 뿐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의사소통의 발달에 국한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영아기 의사소통이 이후 언어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영아기 의사소통의 변화를 13~24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실험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아들이 의사소통행동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김금주 (2000).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기숙 (2004). 12개월, 18개월, 24개월 유아의 의사소통 횟수와 의사소통 기능발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순 (1999). 영아기의 의사소통능력. 삼성복지재단 제7회 학술대회: 올바른 보육은 요람에서부터.

박휴용 (1994).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지현 (2000). 1세 어머니-영아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현숙, 배소영, 송승하 (2001). 한 낱말 단계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연구: 아동특성과 놀이조건을 고려하여. *언어청각장애연구*, 6(2), 313-330.

장유경, 최윤영, 김소연 (2005).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몸짓의 발달. *아동학회지*, 26(1), 155-167.

정경희 (2004). 한국 영유아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및 의미발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훈, 김영태 (2001).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3.

Bakerman, R., & Adamson, L. B.(1986). Infants' conventionalized acts: Gestures and words with mothers and pe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9, 215-230.

Bates, E., Camaioni, L., & Volterra, V. (1975). The acquisition of performatives prior to speech. *Merrill-Palmer Quarterly*, 21, 205-226.

Brady, N. C., Marquis, J., Fleming, K., & McLean, L. (2004). Prelinguistic predictors of language growth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3), 663-677.

Bruner, J. S. (1975). From communication to languag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ognition*, 3, 255-287.

Calandrella, A. M., & Wilcox, M. J. (2000). Predicting language outcomes for young prelinguistic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5), 1061-1071.

Capirci, O., & Iverson, J. M. (1996). Gesture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 645-673.

Capone, N. C., & McGregor, K. K.(2004). Gesture development: A review for clinical and research practic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173-186.

Chapman, R. S. (2000). Children's language learning: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1), 33-54.

Coggins, T. E., & Carpenter, R. L. (1981). The communicative inventory: A system for observing and coding children's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2, 235-251.

Flom, R., & Pick, A. D. (2003). Verbal encouragement and joint attention in 18-month-ol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 121-134.

Goodwyn, S. W., & Acredolo, L. P. (1993). Symbolic gesture versus word: Is there a modality advantage for onset of symbol use?. *Child Development*, 64, 688-701.

Iverson, J. M., Capirci, O., Longobardi, E., & Caselli, M. C. (1999). Gesturing in mother-child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14(1), 57-75.

Iverson, J. M., & Goldin-Meadow, S.(1998). Why people gesture when they speak. *Nature*, 396, 228.

Masur, E. F., Flynn, V., & Eichorst, D. L. (2005). Maternal responsive and directive behaviours

- and utteranc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lexic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32, 63-91.
- Moore, C., & Corkum, V. (1998). Infant gaze following based on eye direc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495-503.
- O'Neill, M., Bard, K. A., Linnell, M., & Fluck, M. (2005). Maternal gestures with 20-month-old infants in two contexts. *Developmental Science*, 8(4), 352-359.
- Paavola, L., Kunnari, S., & Moilanen, I. (200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internal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 early communica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6), 727-735.
- Reddy, V. (1999). Prelinguistic communication. In M. D. Barrett(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Reinhartsen, D. B. (2000). Preverb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 essential step in the lives of infants with severe physical impairment. *Infants and Young Children*, 13(1), 49-59.
- Snow, C. E., Pan, B., Imbens-Balieu, A., & Herman, J. (1996). Learning how to say what one mean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s speech act use. *Social Development*, 5, 56-84.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 748-767.
- Wetherby, A. M., Cain, D. H., Yonclas, D. G., & Walker, V. G.(1988). Analysis of intentional communication of normal children from the prelinguistic to the multiword st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1, 240-252.
- Wetherby, A. M., & Prizant, B. M. (2003).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manual)*. Chicago: The Riverside Publisher.
- Wetherby, A., Warren, S., & Reichle, J. (1998). Introduction to transitions in prelinguistic communication. In A. Wetherby, S. Warren, J. Reichle(Eds.), *Transitions in prelinguistic communica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 Wilcox, M. (1993). Issues regarding language readiness i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Anaheim, CA.
- Yoder, P. J., & Warren, S. F. (2001). Relative treatment effects of two prelinguistic communication interventions on language development in todd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vary by mater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1), 224-237.

---

(2006년 12월 31일 접수, 2007년 2월 14일 채택)